

도하 개발재원 평가회의 결과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개발재원 관련 후속 국제회의-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2008년 11월 29일~12월 2일 양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2002년 UN 주최로 개최된 개발재원회의에서 채택한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 성과 점검을 위한 카타르 도하 자원개발 고위급회의가 개최되었다.

I. 개요

2008년 11월 29일~12월 2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점검을 위한 개발재원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몬테레이 컨센서스'란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서 전지구적 발전과 국제협력을 위한 개발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문서를 말한다.) 본 회의에서는 전체 회의 및 몬테레이 컨센서스 의제별(국내재원 동원, 국제재원 동원, 국제무역, 국제금융 기술협력(ODA), 외채탕감, 국제체제 문제) 6개 부분에서 라운드 테이블 토의가 이루어졌다.

II. 원탁회의별 논의 내용

1. 국내개발재원 및 국제개발재원 동원

가. 핵심내용

1) 국내개발재원 동원

다수 참가자들은 몬테레이 합의 이후 개도국들이 국내개발재원 동원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내개발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의 조세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국내자본 확충을 위한 무역 확대 중요성과 개도국 해외노동자들이 국내송금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2) 국제개발재원 동원

주요한 개발재원 중 하나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등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개도국 내부의 투자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선진국의 ODA등을 활용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개도국들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가 개도국의 개발재원 동원에 있어 심각한 도전과제가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은 ODA의 대체가 아닌 보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대 개도국 FDI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토의 내용

1) 국내개발재원 동원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ODA가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몬테레이 합의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되는 개도국의 국내개발재원 확충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조세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개발재원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특히, 세수증대 및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책임 있는 제도개선 노력과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ODA의 보완적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

되었다. 그리고 조세를 통해 조성된 국가수입이 개발지향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전략적 재정정책이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개발재원 확충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자본 축적이 개도국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중점 논의되었으며,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 무역 인프라 개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요청하였다.

또한, 개도국 참석자들은 해외노동자들의 국내송금이 빈곤국들에게 있어 중요한 개발재원임을 설명하고 해외노동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본국 송금시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 국제개발재원 동원

2002년 이후 개도국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특히, 아프리카는 연평균 5% 성장)되었으며 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도 3배 증가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개도국 경제 및 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한 민간재원의 개도국 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과 현 국제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조치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되

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같은 맥락에서 투자를 위한 원조(Aid for Investment) 추진 제안이 이루어졌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제적 정책공조, 금융 감시 감독 등 규제 및 회계기준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개도국들은 최근 국제금융위기가 개도국의 개발재원 동원에 있어 심각한 도전과제가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혁신적 개발재원 논의가 ODA의 대체가 아닌 보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개발동력으로서의 무역

가. 핵심내용

참가자들은 경제성장에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국제무역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확대 등 특별조치 강화가 재차 강조되었다.

아울러 개도국간 무역확대 등 남-남협력의 강화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남-남협력의 이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수립 이행 등 개도국 스스로의 노력 및 개도국간 무역장벽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개도국들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해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점에 다수 참가자들이 공감하고, 이 분야 원조 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가. 토의 내용

1) 무역과 개발의 관계

유럽연합(EU)대표 등은 무역이 개발에서 하나의 요소(an engine)임을 강조하고, 무역자유화가 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 볼리비아 등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무역 참여시에도 자국의 정책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콩고 대표는 무역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적 평화와 인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논의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2) 포괄적 국제무역체제 형성

국제무역확대를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조속 타결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국제무역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확대 등 특별조치 강화가 재차 강조되었다.

탄자니아는 개도국의 무역능력 부족 등 공급측면

에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발언하였고 인도는 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한(equitable) 무역질서 형성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럽연합은 DDA 협상타결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지적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협상안 채택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리비아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무역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의 WTO 가입이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3) 남-남협력 확대

참가자들은 개도국간 무역확대 등 남-남협력의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남-남협력의 이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수립 이행 등 개도국 스스로의 노력 및 개도국간 무역장벽 제거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남-남협력이 기존 무역체제의 대체적 체제가 아닌 보완적 체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무역을 위한 원조

개도국들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무역능력 배양 및 무역 관련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도국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1차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1차 상품 가격 변동성의 완화와 다양한 개도국 산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개념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 분야 원조 규모 증대뿐만 아니라,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국제금융 기술협력 강화와 외채탕감

가. 핵심내용

1) 국제금융 · 기술협력 강화

원조배분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우선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개도국은 인프라 개발에 보다 많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원조규모 증대와 더불어 원조효과성 증대를 위한 아크라행동계획(AAA)의 성실한 이행, 특히 수원국 현지 시스템 활용, 언타이드 원조확대,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 외채탕감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고채무빈곤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 파리클럽,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채무국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재정여력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개도국의 개발재원 확충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향후 추가적인 관심과 대응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한편, 개도국들은 전체 개도국의 채무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국제 금융 경제 위기가 그간의 성과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도국 채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 노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나. 토의 내용

1) 국제금융·기술협력 강화

(1) ODA규모 및 배분

금융위기로 인한 ODA 공약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진국들의 ODA 공약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ODA의 경우, 군사적·정치적 목적의 원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 ODA 규모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ODA는 빈곤국의 경제사회개발에 대한 지원 및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지원에 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원조 배분 관련하여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우선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은 ODA가 개도국의 개발에 기초가 되는 전력 수자원 개발 등 인프라 개발분야에 사용되기를 희망하나, 공여국의 기후변화, 환경분야 등에 대한 지원 증대로 실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원조효과성 제고

인도네시아는 공여국간 조율, 개발경험 공유 노력, 공여국-수원국간의 파트너십, non-ODA 재원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AAA 규범 준수, 특히 수원국 현지 시스템 활용, 인타이드 원조확대, 개도국 역량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원조프로그램에 있어서 소규모 금융 지원 등 검증된 사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청되며, 사업 추진시 수원국의 현지 전문성이나 인적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외채탕감

IMF 대표 등은 채무구제 자격을 갖춘 개도국 수가 증가하고 HIPC에 총 900억 달러 이상이 지원됨에 따라 개도국의 채무부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무역 제정 측면에서의 악영향, 국내 민간 신용경제권 등에 대한 채무 증가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촉구하였다.

HIPC Initiative 관련하여, 개도국의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의 지원대상 기준 단순화 및 post-HIPCs에 대한 위기상황별 지원방안 강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도국도 경기대응적 재정정책, 금융안정, 수출다변화, 외환보유고 확충, 보험 활용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은행 등은 몬테레이 선언 이후 외채부문 진전과 더불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 개도국의 주인 의식과 거시경제 안정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안정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파리클럽 측은 몬테레이 선언 이후의 개도국 대외채무 상황 개선을 평가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채무구제 이행과 함께 장기 채무 지속가능성, 채권국간의 협력 등을 위한 노력지속 의지를 표명하였다.

4. 국제체제 이슈(국제통화, 금융, 무역체제의 개발 지원 일관성 증진)

가. 핵심내용

1) 국제금융·기술협력 강화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대체로 현 국제금융시스템의 틀 내에서 시장규제와 감독의 강화를 통한 시스템의 제도화 강조, 은행시스템 개혁, 국제금융기구와 UN 등 여타 기구와의 일관성 제고, 시장에 대한 신뢰회복, 규제와 자율의 조화, IMF의 금융시장 안정 및 유동성 지원 기능 강화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기하였다. 개도국들은 현행 국제금융체제의 내안으로 포괄적인 글로벌 포럼의 창설을 통한 체제적 대응 등 새로운 국제체제 수립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지배구조의 포괄적 개편을 추진하여 광범위한 개도국의 참여와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토의 내용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및 NGO대표들은 개도국의 금융경색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의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기가 원조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진국의 ODA 공약 이행 및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가 위기 방지 기능을 이행하녀 위기 발생시에 다자간 유동성 제공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체제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태국은 다자간 공조체제 강화와 병행하여 지역 금융협력 메커니즘의 발전을 통한 금융안정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일부 중남미국가는 포괄적인 글로벌 포럼의 창설을 위한 체제적 대응 금융 및 생산부문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체제 수립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부 개도국은 무역을 통한 개발재원 확충 효과가 ODA보다 월등함을 언급하고, WTO 도하개발라운드 협상은 실질적인 개도국 지원 역할 수행 및 국제무역체제의 균등한 혜택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조기에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네갈 등 몇몇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가 기구 자신의 이익과 보호에 충실하여 잘못된 정보와 정책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비난하고,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시스템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및 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